

**2010년 5월 아몬드 보고서**

2010년 5월의 아몬드 선적량은 9,197 만 파운드이며, 2009년 5월의 1억 1,939 만 파운드보다 23% 감소했습니다.

**분석**

2008년 잔여분 유입:	4억 1,300만 파운드
2009년 예상 수확:	14억 5백만 파운드
<b>3% 손실 차감:</b>	<b>(4,200만 파운드)</b>
전체 가능 공급량:	17억 7,600만 파운드
현재까지 선적 차감:	12억 6,100만 파운드
잔여 공급량:	5억 1,500만 파운드

\*백만 아래는 반올림된 수치임. 따라서 총합(합산 또는 차감) 수치는 개별 수치로 계산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선적**

수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선적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바이어들이 실제 아몬드가 필요한 시점에 구매를 하려 하고 있고, 이미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선호되고 있습니다(캘리포니아로부터 신규 주문을 하는 대신).

2009년 5월에 1억 1,900만 파운드라는 경이적인 선적량을 기록하기 전까지는, 역대 5월 최대 선적량은 2008년 5월의 8,850만 파운드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5월의 선적량 9,197만 파운드는 역대 5월 중 두번째로 높습니다.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수치는 나쁘지 않은 숫자이지만 시장에서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일거 같습니다.

**미국 시장**

3,925만 파운드라는 환상적인 선적량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5월 최고 선적량을 보인 작년 5월의 3,300만 파운드에 비해 거의 19%나 증가했습니다. 너트가 건강 식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식단에 아몬드를 추가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아몬드 소비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수출량은 5,270만 파운드로, 역대 5월 최대였던 작년 5월의 8,600만 파운드보다 39%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구매한 양을 지금 소화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중동, 유럽에는 아직 사들인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재고 수준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8월에는 다시 캘리포니아로부터 신규 구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선적량**

다음은 아시아 주요국의 탈각 및 비탈각 아몬드 선적량 통계입니다(단위는 파운드).

국가	2009.8 - 2010.5		2008.8 - 2009.5		%변동
	탈각	비탈각	탈각	비탈각	
중국/홍콩	73,600,473	50,277,982	62,923,859	28,743,361	35%
일본	45,975,321	29,374	40,025,710	278,676	14%
한국	21,762,975	0	17,210,549	0	26%
대만	6,221,737	358,186	5,058,779	319,441	22%
말레이시아	3,473,266	0	2,103,572	0	65%
태국	3,026,499	525,612	1,768,750	0	101%
베트남	1,039,750	2,940,912	479,200	407,374	349%

**통화 및 금융**

유로에 대한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선적량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2009년 11월:	€1 = \$1.49
2009년 12월:	€1 = \$1.46
2010년 1월:	€1 = \$1.42
2010년 2월:	€1 = \$1.36
2010년 3월:	€1 = \$1.35
2010년 4월:	€1 = \$1.34
2010년 5월:	€1 = \$1.25
2010년 6월:	€1 = \$1.20 (6월 일부)

**객관적 예상치 발표 지연되고 있음**

객관적 예상 수확량 발표일이 6월 30일에 7월 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했고 너트류 성장이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NASS(농업 통계국)에 따르면 아몬드에는 “매우 늦게 성숙(extremely late maturity)”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확량 발표가 연기된 만큼, 더욱 정확한 예상치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결론**

일부 수입업자들이 해당 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아몬드를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및 경험이 비교적 적은 업체들이 많이 비즈시스에 뛰어들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아몬드를 사들여 시장에 물량이 넘치게 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특히 중국 및 두바이). 글로벌 수요가 엄청나게 더져 2월의 선적량이 주춤했던 것도 이에 기인합니다.

**아몬드 시장이 계속 약세일거라는 주장의 근거:**

- 기대에 비해 선적량이 뒤처지고 있음.
- 미국 달러 대비 유로가 약세임.
- 유럽의 경제 위기.
- 계약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유럽 업체들이 일부 있음.
- 라마단 수요 대비 중동의 캘리포니아로부터의 구매가 실현되지 않음.
- 두바이에 아직 재고가 꽤 남아있음(호주에서 물량이 지금 도착하고 있으며, 여름동안 선적될 것임).
- 홍콩에도 재고가 좀 있음(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 캘리포니아 셀러들끼리 협력이 안 되고 있음. 물량을 가진 의욕적인 셀러들이 아직 있음 (현금 흐름을 생성해야 하거나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 세계 여러곳의 바이어들이 구매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없는 편임. 바이어들은 현재의 가격에도 만족하지만,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해보는 듯함.

**아몬드 시장이 회복할거라는 주장의 근거:**

- 피스타치오, 호두, 피칸, 캐슈넛에 비해 아몬드는 저렴한 너트 대안임.
- 대규모 재배업자 중 일부(대부분 센트럴 산 호아킨 지역의 재배업자, 수확량-특히 논파레일-이 가장 약한 곳)는 수확량이 15억 5천만 파운드에 되지 않을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음.
- 산 호아킨 밸리 지역의 날씨가 예년에 비해 서늘하여 수확이 몇 주 지연될 수 있음.
- 유럽 바이어들은 장기가 아닌 스팟성으로 구매를 하고 있음. 유럽의 재고 수준은 그다지 크지 않음. 결국, 신규 구매에 대한 수요는 캘리포니아로 올 것으로 보임
- 계절적 공급은 수요와 합리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음. 수확량이 15억 5천만 파운드, 유입량을 3억 파운드로 잡으면, 2010 시즌 캘리포니아의 공급량은 18억 파운드(3% 손실 차감)가 될 것임.
- 공급량이 있다면 글로벌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임.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10 시즌 동안, 공급 물량이 있는 경우 수요는 증가했음.

2670 West Shaw Lane, Fresno, California 93711 U.S.A.  
Telephone (559) 435-2664 • Fax (559) 435-8520 • [www.dercofoods.com](http://www.dercofoods.com) • e-mail: [derco@dercofoods.com](mailto:derco@dercofoods.com)

현재로서는 시장은 현상황을 유지하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한번 회복하기 시작하면 가격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가격 조정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RCO FOODS**